

200자안내

記者가 본 '88 100大 뉴스

한국편집기자회 편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서부터 제13회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87년 한해 동안의 갖가지 사건들을 모았다.

한국편집기자협회에서 올해로 네번째로 내 「100대 뉴스」에는 87년에 일어난 사건들이 월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풍부한 사진자료가 함께 수록돼 있다.

나라기획 / B5 / 606면 / 4500원

러시아 모더니즘 1900-1930

기비안, 찰스마 역 / 문석우 편

문학, 문학비평, 건축 등 러시아문화 전반에 나타난 모더니즘을 분석한 논문집。美코넬 대학이 개최한 러시아 모더니즘 회의에서 발표된 8편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방대한 자료와 문헌을 소개하고 있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연구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리라 기대된다。

열린책들 / A5신 / 226면 / 3000원

철학의 세계

A.C. 유잉 저 / 편집부 역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연구는 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철학에서 중요한 문제, 개념은 무엇인가—이러한 것들을 전공생 뿐만 아니라 비전공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한 철학서。선험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 진리, 물질, 공간과 시간 등 주요 철학개념들이 설명돼 있다。

同和出版公社 / A5신 / 330면 / 3300원

재난·생존·행복

홍종화 편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행동요령, 응급처치 및 사전 준비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 책。홍수, 지진, 해일 등의 자연 재난과 화재, 전쟁 등의 인위적 재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가 쉽게 설명되어 있다。

예일 / A5신 / 316면 / 3800원

現代韓國水產史

水友會 편저

수산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총망라한 책으로 수산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 간행했다。이 책은 광복 이전의 수산과 광복 이후의 수산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체계있게 편집되었고, 수산업에 관련된 모든 부문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어 수산관계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유익하다。

社團法人水友會 / B5 / 1515면 / 80000원

새 마음의 샘터

李聖洙 편저

KBS에서 인기리에 연속방영된 교양명언을 책으로 묶었다。희망, 인생과 자연의 합창, 인간과 사회의 교차로, 사랑과 결혼의 조건, 사색하는 인간과 예지, 교양과 예술의 광장 등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해당 금언을싣고 있다。

휘문출판사 / A5신 / 304면 / 3500원

키크는 비결

가와바다 아이요시 저 / 박희준 역

키가 좀더 클 수 없을까? 키는 어떻게 해서 자라는지, 키를 크게 하는 운동, 영양식품, 생활방법 등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또한 키는 생활을 통해 커질 수 있으며, 스무살이 넘어도 클 수 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부록으로 '대학입학 체력검사'를 실었다。

國際文化出版社 / B6 / 196면 / 2000원

마조어록

이리야 요시타카 저 / 박용길 역

마조어록을 원문, 번역, 해설로 구성하여 국내 최초로 소개한 책。백장, 황벽, 임제로 계승되어 후세의 禪者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마조선사의 출생, 기행, 교육방법 그리고 방거사, 단하천연, 혜충 국사 등 중국의 유명한 선사들과 나눈 문답과 법어가 실려 있다。

고려원 / A5신 / 272면 / 3500원

사랑 그리고 그 진실

앨런 프론 저 / 장말희 역

이 책은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이끄는 지침서이다。'사랑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까지, 인간의 내밀한 속 마음에서부터 문학작품에 나타난 사랑에 이르기까지를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문사 / A5신 / 324면 / 3500원

주식투자방법

양우석 저 / 최광훈 감수

주식투자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주식에 관해 좀더 균형있는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주식투자 해설서。이 책은 실제 투자에 있어서 의문이 생겼을 때나 벽에 부딪혔을 때 혹은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쉽게 관련항목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집됐다。

韓國經濟評論社 / A5신 / 357면 / 5000원

歴史의 詩集

丁桂鎮 편저

향토사가인 저자가 널리 애송되고 있는 漢時 600首, 古時調 90首를 뜻풀이하고, 작가의 배경 및 행적과 유래 등을 상세히 기록한 책。제1, 2편에서는 서론격으로 한시와 고시조의 개념을 간략히 살폈으며, 中原시집, 삼국시대 시집, 조선시대 시집 순으로 수록했다。

明志出版社 / B5 / 484면 / 12500원

基督教倫理와 韓國文化

朴奉培 저

前감리교신학대 교수인 저자가 그 동안 발표했던 논문들을 모았다。신학과 윤리, 문화와 윤리, 현대사회와 윤리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신학자들의 윤리사상, 한국문화와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토착화하는 과정, 사회윤리에 관한 문제를 다룬 내용들을 담고 있다。

성광문화사 / A5신변형 / 748면 / 8000원

基督教 社會倫理 原論

폴 L.레만 저 / 심일섭 역

종교개혁의 신앙과 사상이 행위에 있어 창조적 의미와 지침을 제공해주는 윤리와, 그러한 윤리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의 윤리, 윤리에 관한 철학적 사고와 기독교적 사고,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서의 양심의 문제를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大韓基督教出版社 / A5신 / 432면 / 6000원

작은 巨人들

나명순 저

조선일보 기자 나명순씨가 84년 8월부터 「주간조선」의 '인간순례'란을 통해 만난 33인의 고통과 좌절, 승리의 이야기를 담은 삶의 보고서。남정현, 박경리, 김기창, 양성우, 무세중, 지선스님 등 33인의 '작은 거인들'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겨레 / A5신 / 380면 / 3600원

외침과 속삭임

홍파 저

시나리오, 영화평론으로 신춘문예에 여러차례 당선한 영화작가 홍파의 첫 장편소설。실제인물인 Q를 통해 영화와 정치, 사회와의 오묘한 관계를 영상기법으로 파헤치고 있다。인간의 양면성을 첨예하게 다룬 스웨덴의 영

화, '외침과 속삭임'을 제목으로 달았다。

현대문화센타 / A5신 / 322면 / 3500원

레닌그라드 데카메론

율리야 보즈네센스카야 저 / 金知仁 역

레닌그라드의 한 산부인과 병동에서 같은 날 아기를 낳고 그 병동에 퍼진 전염병으로 열흘 동안 병실에 격리수용된 산모들의 이야기。복카치오의 「데카메론」과 같은 구성이다。소련 출신의 반체제 여류작가의 이 소설에는 소련인의 삶, 고뇌 등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다락원 / A5신 / 370면 / 3700원

이바구別曲

徐廷範 저

87년 한해동안 대학가에서 유행한 속어를 수집하여 펴낸 속어집 '참새시리즈' 'IQ시리즈' '바보시리즈' '선거시리즈' 등 34가지의 속어시리즈와 '씨를 뿌리는 마음' '생명의 계절' 등 수필 15편을싣고 있다。이와 함께 「미르(龍)어를 통해 본 용궁사상」 등 특수어에 관한 글을 수록했다。

汎潮社 / A5신 / 330면 / 3500원

한국 명문가의 혼맥 · 인맥

吳景煥 저

예부터 금력과 권력이 뒤얽힌 결혼으로 새롭게 인맥과 혼맥을 있는 경우가 꽤 있었다。이 책은 현재 서울신문사 기자인 저자가 이승만·박정희 등 대통령가에서부터 현대그룹, 롯데그룹 등의 재계를 비롯, 관계·예술계 등 한국상류층을 총망라한 혼벌산맥을 파헤쳐 총정리했다。

한그루 / A5신 / 294면 / 3000원

르네상스

윌터 페이터 저 / 김병익 역

인상주의 비평가의 권위자인 윌터 페이터는 「르네상스 연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빙켈만에 이르기까지의 인물들을 망라하고 있다。이 책에서 정신적인 미의 추구와 인간성의 조화까지도 겨냥한 생활의 미화를 최고의 이상으로 삼은 페이터의 심미주의를 엿볼 수 있다。

종로서적 / A5신 / 182면 / 2200원

문화활동 세미나

藏原惟人 저 / 유염하 편역

1920년대 말 이후 문예비평 분야에서 일본 최대의 논객일 뿐 아니라 문화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탁월한 실천적 지침의 입안자로 일컬어지는 저자의 문학 및 문화운동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논문을 뽑아 묶었다。문화원론에 대해 심도깊게 논하고 있는 책。

공동체 / A5신 / 260면 / 3000원

지식인의 양심

A. 토인비 외 저 / 任軒求 역

현대사회에서 지식인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인비나 루카치와 같은 금세기의 대표적 지식인들이 쓴 글들의 모음. 급변하는 역사현실 속에서 지식인의 가치평가를 새롭게 제시하여 비판적·창조적·변혁적 기능을 지닌 지식인의 소명을 보여준다.

汎友社 / A5 / 257면 / 3000원

시원문화를 찾아서

한배달 편

한민족의 역사적 뿌리를 캐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배달에서 85년 이후 지금까지 해온 역사문화강좌의 강연 내용을 엮은 책. 제1부 전통사상의 새 발견, 제2부 상고사 논쟁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전통의 정당한 계승만이 국민성 함양과 집단정신 고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한배달 / A5신 / 215면 / 2800원

붉은 사랑

A. 콜론타이 저 / 김제현 역

일생을 사회혁명과 여성해방을 위해 투신했던 소련의 정열적인 여성활동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자전적 소설. 이 책은 17세 연하인 디멘코라는 남자와의 결혼생활과 파탄이라는 그녀 자신의 경험을 소설화한 것으로, 그녀 특유의 여성관과 성모랄이 잘 나타나 있다.

공동체 / A5신 / 264면 / 2800원

컴퓨터 상품학

신충우 저

본격적인 컴퓨터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컴퓨터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 문명의 이기를 어떻게 잘 사용하여 바람직한 정보화 사회를 이루할 것인가에 대한 저자의 성찰이 담긴 책. 컴퓨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다.

오르사 / A5신 / 301면 / 비매품

아름다운 영시와의 만남

장대진 저

英美詩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영미시를 손쉽게 즐기는 한편 지식도 얻을 수 있도록 꾸며진 시선집이다. 입문서. 첫머리에 운율을 포함한 영미시의 형식상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수록작품도 쉬운 시에서 점차 어려운 시로 옮겨가고 있어 독자의 감상과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探求堂 / A5신 / 331면 / 5000원

하루의 의미

金基實 편저

‘한마디와의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란 부제가 붙어 있는 일일인생론. ‘우정에 있어서는 다음 계율을 준수할 것. 수치스런 일을 요구하지 말고…키케로’ ‘사람의 일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만큼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모파상’ 등의 명구를 통해 하루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삼한출판사 / A5신 / 168면 / 2000원

두개의 韓國, 하나의 未來?

존 설리번 · 로버타 포스 공편 / 崔奉大 역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통일은 과연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일인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서 재미한인 교포사회와 미국친우봉사회(AFSC)가 마련한 일련의 세미나를 엮은 것으로서, 남북한 정세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인상적이다.

청계연구소 / A5신 / 244면 / 3000원

가정생활부동산

梁貴萬 저

실생활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주부들을 대상으로 쉽고 자상하게 설명한 책.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건전한 부동산 투자요령에서부터 계약서 작성방법, 상속과 유언, 세금 계산요령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예와 자료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가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부동산거래연구소 / A5신 / 352면 / 5000원

200자 안내

계간지

창작과 비평

백낙청 외 편



1970년대의 문학계와 지식인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의 하나였던 계간 「창작과 비평」이 8년만에 복간, 통권 제59호가 나왔다.

화제의 책

술의 세계

김호근 편



술에 대한 동서고금의 갖가지 문헌과 일화, 그림과 광고, 속담과 격언, 그리고 유머 등을 함께 묶은 「술의 세계」가 간행돼 흥미를 끌고 있다. 이 책은 특히 술 자체에 대한

이색출판

젊은 건축가 홍순인

대우건축연구소 편



출판문화회관을 비롯, 충북대 캠퍼스, 서울대 예술관, 종로 코아빌딩 등을 설계했던 건축가 홍순인씨의 생애와 작품을 정리한 「젊은 건축가 홍순인」이 간행됐다.

종전에 비해 체제나 편집노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번 복간호에는 우선 권두좌 담으로 최원식 · 김명인 등의 소장연구가들이 참여한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을 실어, 가장 최근의 창작성과 비평적 쟁점들을 민중 ·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

또한, 백낙청(「오늘의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박현채(「분단시대의 국가와 민족문제」), 심희기(「한국법의 상위이념으로서의 안보이데올로기와 그 물질적 기초」) 등의 논문을 비롯, 신경립 · 황석영 등의 시와 소설작품들도 함께 실었다.

새롭게 발굴한 신인작품들로는 김광렬의 시 「별」, 홍희담의 소설 「깃발」을 소개하고 있다.

창작과비평 / A5신 / 432면 / 4000원

것보다는 ‘술주변’의 이야기를 주로 묶었다는 점에서, 술에 대한 화제거리의 집대성이 라 할 만하다.

가령, 작곡가 무소르그스키가 알콜성간질로 사망했고, 회곡작가 유진 오닐이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를 위해 음주벽에 빠졌다든지 하는 것들을 비롯해, 이 책에는 동서고금의 명사와 酒豪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소개되고 있다.

술에 관한 글들로는 李奎報의 「麴先生傳」 林椿의 「麴醇傳」 등 가전체소설을 비롯해, 李鳳九, 李瑞求, 梁柱東, 卞榮魯, 趙芝薰 등 현대한국의 시인 · 작가들의 예세이를 함께 실었고, 민간에 전승되는 술에 얹힌 설화들도 광범하게 수록했다.

진로그룹홍보실 / A5신 / 238면 / 비매품

1984년 태계하기까지 20여년간 모두 65점의 건축작품을 남긴 홍순인씨의 인간과 생애에 대한 동료, 선배, 친지들의 회고담, 그리고 그가 남긴 작품들의 설계도면 및 준공 후의 사진과 함께 전문가들의 작가론, 작품론을 함께 묶었다.

이 책은 특히 이 방면의 책이 흔치 않은 실정에서, “설계자의 창의성이 사용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다”고 하여 “설계 이전에 건축가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홍순인씨의 건축관이 실제 설계를 통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일반에겐 덜 알려진 젊은 건축가의 작품을 집성했다는 점에서 우리 건축계의 소홀히 할 수 없는 자료적 성과로 평가되는 책. 집문사 / B5변형 / 226면 / 15000원